

201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전월비 13.2p 하락한 73.5 기록
3개월 연속 하락, 14개월 내 최저수준

- 2016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3.2p 하락한 73.5를 기록함.
 - CBSI는 2015년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한 이후 8월부터 상승세가 한 풀 꺾여 90선에서 정체함. 특히, 연말에는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해 86.3을 기록함.
 - CBSI는 2016년 1월 들어서도 전월비 13.2p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수가 14개월 내 최저 수준인 73.5까지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가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전월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감소 폭이 컸음. 최근 5년간 1월 CBSI는 평균적으로 전월비 4.9p 하락했음.
 - 결국 올 초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중국발(發) 대내외 경제위기 가능성이 증가된 것도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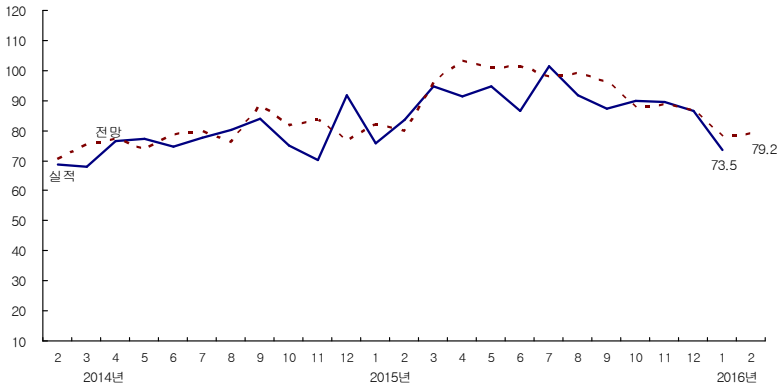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지수 하락이 매우 두드러짐.
 - 대형기업 지수는 작년 12월에 전월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1개월 만에 기준선(100.0)을 회복하였는데, 올해 1월에는 다시 전월비 7.7p 하락해 작년 11월과 동일한 92.3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17.3p나 하락한 76.5를 기록함. 이는 12개월 내 최저치로 중견기업의 체감경기가 매우 악화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5.1p 하락해 14개월 내 최저치인 47.9을 기록함.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여전히 가장 낮은 체감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78.1	79.2	
규모별	대형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92.3	100.0
	중견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4.4	70.6
	중소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4.3	64.6
지역별	서울	107.9	102.5	103.0	97.4	115.2	100.5	97.2	100.6	98.2	99.0	88.3	88.7	91.1
	지방	75.1	75.6	82.6	71.0	80.4	78.4	72.4	74.3	75.9	66.2	51.5	59.8	61.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6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5.7p 높은 79.2를 기록함.
 - 2월 전망치가 1월보다는 양호하나, 전망치가 기준선에 훨씬 못 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통상 2월까지는 공사물량이 많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2월에도 특별히 건설경기를 개선할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10.7p 하락한 88.3을 기록, 지방기업은 14.7p 하락한 51.5를 기록함.

- 서울기업 지수는 작년 12월에 지수가 0.8p 상승함으로써 기준선(100)에 근접한 99.0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1월에는 10.7p 하락한 88.3을 기록함.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14.7p 하락해 14개월 만에 최저치인 51.5를 기록, 연초 지방기업의 체감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6년 1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전월비 11.4p 하락한 87.8 기록

- 2016년 1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11.4p 하락한 87.8를 기록함.
 - 신규공사 수주는 작년 8월 기준선(100.0)를 넘어선 103.9를 기록한 이후 9~10월 기준선 10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함. 이후,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하락하여 99.2를 기록하였음.
 - 올해 1월 들어와 지수가 87.8을 기록 12월 대비 11.4p하락함.
 - 통상 연말 밀어내기 공사 물량의 영향으로 12월에 물량 지수가 상승한 이후 다음해 1월에 10~15p 정도 다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10년 간 연 초 등락폭 평균이 13p인 것을 감안,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비주택 건축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하락하였는데, 토목 신규공사 지수는 소폭(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112.0, 102.6으로 양호했음. 그러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9.3p 하락한 93.3를, 1월에도 4.8p 하락한 88.5를 기록해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13.8p 하락한 75.8을 기록, 공종별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2.1p 상승한 88.7을 기록해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임. 다만, 지수가 기준선 100.0에 미치지 못하며, 80선에 불과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지수가 작년 12월 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50선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됨.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작년 12월 대비 15.4p 하락한 107.7을 기록, 비록 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2.8p 하락한 94.1을 기록, 지수가 소폭 하락함.
 - 한편,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작년 12월 대비 12.8p 하락한 57.1을 기록, 지수가 10개월 만에 50선으로 떨어짐.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종 합	구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7.8	107.7	94.1	57.1	106.3	60.4
	전망	89.3	115.4	82.4	66.7	103.6	68.1
토목	실적	88.7	115.4	97.1	47.9	111.2	55.8
	전망	82.6	92.3	85.3	68.1	92.9	67.1
주택	실적	88.5	115.4	90.9	54.2	108.1	59.7
	전망	93.5	107.7	97.0	72.9	104.2	77.8
비주택	실적	75.8	92.3	82.4	48.9	89.1	56.5
	전망	94.2	125.0	82.4	71.7	107.3	74.9

주 : 실적은 2016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6년 2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월보다 소폭 1.5p 상승한 89.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에 미치지 못한 80선에 머물러 역시 2월에도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수주 전망지수의 경우 각각 1월보다 5.0p, 18.4p 상승한 93.5, 94.2로 전망해 침체된 상황이 2월에 들어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토목 수주의 경우는 6.1p 하락한 82.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1월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건설공사 기성 지수 86.6 기록, 전월보다 11.8p 하락
수주잔고 지수는 86.0 기록, 전월보다 7.4p 하락

- 1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11.8p 하락한 86.6을 기록하여 전월 대비 공사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대형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지난 8~10월 기준선(100.0)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11월에 13.4p 급락함. 12월에는 지수가 6.7p 반등하여 98.4를 기록했으나 1월에는 해 다시 11.8p 하락하며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음.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3.1p 하락한 92.3으로 11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이하로 하락하였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5.9p 하락한 94.1을 기록함. 중견기업 지수가 기준선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만임.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5.2p 하락한 71.4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2015년 5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임.
 - 한편, 2016년 2월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99.0으로 1월 실적치 대비 12.4p 높게 나타나, 호한기를 벗어나면서 공사 진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7.4p 하락한 86.0을 기록함.
 - 이는 1월 수주 잔고 상황이 지난 12월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 대비 15.4p 하락하였으나 기준선 이상인 107.7을 기록하여 수주잔고가 전월보다 증가함.
 -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각각 5.3p, 0.5p 하락한 85.3, 61.2를 기록하여 수주잔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6년 2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95.7로 다수의 건설기업들이 잔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86.6	92.3	94.1	71.4	97.1	71.1
	전망	99.0	123.1	97.1	72.9	109.9	82.8
수주 잔고	실적	86.0	107.7	85.3	61.2	97.4	69.0
	전망	95.7	133.3	87.9	60.4	110.0	75.0

주 : 실적은 2016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 1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전월 대비 2.8p 하락한 93.7을 기록하여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반면, 자금조달 지수는 비교적 큰 폭인 8.5p 하락하여 77.5를 기록함.
 - 공사대금 지수는 지난 11월에 96.6으로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큰 변동 없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자금조달 지수는 201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기록하는 등 건설기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자금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실적	93.7	107.7	97.1	73.5	104.6	77.7
		전망	95.8	107.7	100.0	77.1	105.2	81.9
	자금조달	실적	77.5	92.3	73.5	64.6	85.9	65.0
		전망	80.5	92.3	82.4	64.6	88.3	69.0

주 : 실적은 2016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끝